파견 기간	2023-1학기	본부 국외파견교환학생 수학후기 공모전 (수기) 작성 양식	학 번	
파견 국가	미국		소 속	
파견 대학	UC Berkeley		성 명	김O호

I. 교환 파견 동기

물론 다들 흔히 말하듯, 외국어의 자연스러운 습득과 낯선 환경에서의 새로움을 통한 시야 확장은 교환 프로그램을 참가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해결되지 않은 대학생활에 대한 욕심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1학년, 2학년을 마치고 나니 흔히 말하는 '고학번'으로서의 3, 4학년 생활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학번으로서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3학년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이런 제게 교환학생을 추천해주었고, 저는 이게 과연 내 대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교환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이 결정을 내린 순간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이 마음껏 미국 생활을 누리고 왔으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셨다면 교환 프로그램이 삶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제가 UC Berkeley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교환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작용했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 학문적 우수성 2. 언어 3. 지역 및 문화, 이렇게 3가지 조건을 고려했습니다. 우선 1. 학문적 우수성을 고려한 이유는 단순히 해외의 우수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역량을 지니는지, 그들이 학습하는 공간은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보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비용 대비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제가 얻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장점이 바로 '현지 학생들이 받는 교육을 서울대의 교육비로 이수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해외에서 대학 생활을 보낼 거라면 최고의 교육 수준을 제공하는 대학교에서 교환 학기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고르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2. 언어 또한 제 교환 파견 동기 중 하나였던 만큼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1년 정도 미국에서 생활했는데, 확실히 현지인들과 24시간을 함께하며 소통하다 보니 영어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영어 실력이 많이 준 듯하여 이번 기회에 다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영어권의 대학으로 교환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 지역 및 문화란 여행다니기 좋은 기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당 지역이 외국인에게 얼마나 친화적인지(혹은 인종 구성이 얼마나 다양한지)도 의미합니다. 물론 영어가 늘기 위해서는 동양인이 거의 없는 미국 중부의 대학이나 유럽권의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았겠지만, 인종차별의 위험,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급적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지역에서 생활하고 싶었습니다.

2. 파견대학/지역 특징

UC Berkley는 캘리포니아 북부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위치한 공립대학으로, UC 계열 가운데 가장 먼저 설립되었고 UC Merced와 함께 유일하게 쿼터제가 아닌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

다. 대부분의 전공 분야에서 최상위권의 위치를 점하고 있고, 세계에서 3번째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기후는 사계절 내내 7~20도 사이로 온화하며, 세계에서 날씨가 가장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제가 UC Berkeley를 선정한 이유는 앞서 작성했던 교환교 선정 기준에 해당 대학이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상술했듯 UCB는 미국 최고의 공립대학이라고 알려져있는 만큼, 제가 기대하는 학문적 수준을 잘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우수한 학생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떠한 미래를 그리는지를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UCB는 여행 다니기 매우 적합한 기후와 요건, 그리고 높은 인종 다양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선한 날씨, 대도시와 인접한 위치, 편리한 교통은 대개 이동을 위해서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미국 교환학생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해줍니다. 또한 인종의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캘리포니아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이전에 california gold rush를 기점으로 체류외국인의 비율이 급증했고, 현 시점에는 이민 2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상술했듯 미국에서 1년 정도 수학한 경험이 있는데, 이때 버클리 바로 옆의 albany라는 지역에서 거주했습니다. 당시 이웃들이 외지인인 저희 가족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던 기억이 남아있어 조금이나마 감정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버클리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OIA에 신청하는 절차 자체는 간단하더라도, 그 이후의 절차는 학기 중, 그것도 시험기간과 맞물려 진행되기에 잘 기억해두시고 정리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그램에 합격하셨다면 교환대학에 다시 한 번 study abroad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OIA에서 메일을 통해 상세히 안내되므로 메일 확인 잘 하시고, 필요한 서류 잘 구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대부분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이때 제출해야하는 immunization 관련 문서가 꽤나 까다롭기 때문에 이전에 접종 내역 찾아보시고 필요한 접종은 다 받으셨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받았떤 접종 내역이 누락되어 있었음을 이번 교환을 준비하며 뒤늦게 알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접종받았던 병원이 폐업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아기수첩기록이 있어서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인정해주셨습니다. 또 새롭게 접종받으셔야 하는 경우, 서울대에서 일부 접종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발급은 학기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보고 접수하서야 합니다. 대개 교환학생인 경우 인터뷰 없이 바로 통과시키기도하지만(제가 그랬습니다.) 제 앞에 있던 분은 대답을 잘 못하셨는지 기각당하셨습니다. 이처럼 비자 인터뷰를 떨어지거나 늦게 신청하실 경우, 학기 시작 이후로 비자 발급이 늦춰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기간이더라도 사전에 시간을 내셔서 미리 인터뷰를 보시길 바랍니다.

2. 숙소 지원 방법

숙소는 on-campus와 off-campus로 나뉩니다. on-campus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를 부르는 명칭이고, off-campus는 학교 밖 인근 지역에서 따로 방을 렌트해서 묵는 것을 말합니다. on-campus와 off-campus는 각기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on-campus	off-campus
장점	1. [네트워킹] 기숙사 특성상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을 수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버클리는 한 수업에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이 백 명) 학교 수업에서 다른 학생과 친해	1. [보다 나은 생활환경] 버클리의 기숙사는 대부분이 2-3인실이고, 화장실과 샤워실이 공용인데다 방 밖에 있어 다소 불편합니다. 그런 점에서 1-2인이서 넓은 방을 사용할 수

	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기숙사에 묵게 되시면 다른 문화의 학생들과 자주 마주치게 되고, 친해질 확률도 높습니다. 2. [meal plan] 기숙사마다 제공하는 식대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가까운 음식점이나 자체적인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도 물가가 높은 편이고, 특히 학교 주변 식당은 품질 대비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면 외식하는 비용을 줄이고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있는 off-campus에 묵게 되시면 보다 안락하게 교환 생활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2. [좁고 깊은 관계 형성] 물론 기숙사에서도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지만, 한 집에서 소수의 인원이 함께 생활하는 off-campus 특성상 룸메이트와 보다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교환의 목적에 따라서 영어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현지 친구와 룸메이트를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현지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다른 한국인 유학생과 함께 off-campus 숙소에서 묵는 경우도 봤고, 이 경우에도 여행을 함께 다닐 친구가 생긴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1. [신청 허가까지의 불확실성] 저는 기숙사의 생활환경이 불만족스러웠기도 하고, 기숙사에 묵지 않더라도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숙사 가운데에서는 international house만 신청하고 이외의 기숙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ihouse에 방이 나지 않을 경우 따로 방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마음을 졸이며 다른 방을 계속 알아봐야 했습니다. 결국 자리가 나서 운 좋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학기 시작 전에도 머물 곳을 찾지 못했더라면 이미 off-campus의 매물은 거의 다 나간 상황이었기에 캠퍼스와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치안] 버클리는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기숙사라고 더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 안면을 튼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고, 또 기숙사 위치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on-campus가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2. [비용] 대부분의 기숙사가 무료 meal plan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를 감안하면 off campus 렌트비 + 식비 + 가구 및 기타 생활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off-campus가 비용적으로 부담이 조금 더 큽니다. 3. [계약의 안전성] off-campus의 경우 집주인은 장기 계약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많은 매물이 6개월 단위로 올라옵니다. (facebook, zillow, 카카오톡 한국 유학생 채팅방을 통한 매물 확인 가능) 4개월을 묵는 교환학생의 경우, sub-rent 방식으로 또 다른 유학생을 찾아 남은 2개월을 직접 렌트 주기도 합니다만, 계약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위 사항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교환학기를 보내고 싶어 on-campus의 ihouse로 지원을 했고, 초반에는 waitlist로 배정되었으나 학기 시작 거의 1-2달 전이 되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International house는 UCB 기숙사 가운데 가장 비싼 기숙사로, 한 학기에 원화로 약 1,200만원정도입니다. 가장 저렴한 방이 1,200만원이고, 빈 방이 프리미엄일 경우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학생을 뽑는지 자세히 알려진 바는 적으나, 추첨제로 선발되는 타 기숙사와 달리 전공, 인종 등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침 점심 저녁이 뷔페식으로 모두 제공되고, 기숙사생 전용으로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해 타 유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집니다. 가령 매주 한 국가를 대표하는 학

생들이 다른 국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음식을 대접하며 그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DiversiTEA&Coffee Hour, 학기에 1-2번 진행되는 포멀한 저녁 식사 Sunday Supper, 학기 말 진행되는 ihouse prom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 행사 외에도 다같이 샌프란시스코에 놀러가거나 등산을 하는 소규모 프로그램도 자주 진행되므로 사람을 사귀기 매우 수월한 환경입니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도서관이 건물 내부에 있어 시험기간에 공부하기 용이한 환경이고, mail room이 따로 있어 택배를 받기 위해 멀리 나가거나 배송 담당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office에서 대신 수령해준 우편물을 원할 때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 공간이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경로는 많을 것 같아 off-campus로 집을 구하려 하였으나, ihouse는 워낙 역사가 깊고 유명한 기숙사이기에 기숙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ihouse만을 신청하였습니다. Offer를 decline하는 것은 자유롭기에, 우선 신청을 해두시고 다른 기숙사나 off-campus를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ihouse로 언제 허가가 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플랜b를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이때 제가 미숙해서 플랜 b로 알아보았던 집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집주인에게 실례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매물을 살펴보시고, '언제까지 ihouse를 기다리고 이 기간이 넘으면 이중 남은 매물로 무조건 계약한다'하는 기간을 스스로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On-campus로 묵기로 결정하셨다면, 기숙사에는 크게 3 종류가 있습니다. Unit 이라는 정규 기숙사와 인터내셔널 하우스라고 불리는 국제학생을 위한 기숙사, 그리고 COOP이라는 학생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기숙사입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예치금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비자나 마스터 카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보통은 Unit 이나 인터네셔널 하우스에서 살게 되지만 COOP이라는 학생 자치 기숙사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행정업무부터 시작해서 청소까지 자치회의 주도 아래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기숙사비가 다른곳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친구 사귀기도 쉽습니다. COOP은 4인 1주택(방은 각방, 주방과 화장실만 공유)부터 1인실 까지 다양한 옵션의 기숙사를 제공하며, COOP 자치회에서는 다양한 파티를 매주 주최하며 바비큐 파티도 종종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할당된 시간만큼의 노동을 소화해야 합니다.

Unit 이라고 불리는 이곳의 정규 기숙사에 살게 되면 학교계좌를 통해 의무적으로 학교 안에 위치한 몇몇 상점에서만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주로 학생식당인 "크로스로드" 와 "골든베어"에서 식사를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내셔널 하우스에 거주하게 되면 인터내셔널 하우스 전용 식당을 이용해야 합니다. 메뉴는 뷔페식이며 다소 단조롭습니다. 나오는 메뉴가 다소 반복적이지만, 버클리 내부 식당 가운데에서는 가장 가격이 높고 맛있는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COOP에서 살게 되면 자신이 주방을 이용하여 손수 해 먹어야 합니다. 약간은 번거롭지만 식비를 상당히 많이 아끼고, 룸메이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Off-campus를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최대한 많은 매물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물을 살펴보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1)지인 추천, 2)zillow 앱, 3)facebook이나 인스타그램에 매물 검색 등이 있습니다. 이때 사기 매물이 꽤나 많기 때문에 가급적 지인, 혹은 검증된 신분의 중개인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e.g. 이전 학기 교환학생이었던 고려대학교 학생), 꼭 zoom이나 video call을 통해 집을 둘러보셔야 합니다. 확정을 지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관심이 있음을 밝혔는데 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한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물론 집 주인 입장에서는 빠르게 계약을 확정짓고 싶으니 예약금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지원하고 집 정보를 물어봤는데 돈을 요구한다면 받고 잠수를 타는 scam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클리에서 집을 구할 때는 people's park 주변 지역을 피하시고, 조금 캠퍼스와 거리가 있더라도 대로변 쪽에 집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안이 안

좋고 부랑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기숙사 비용 등)

OIA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장학금도 있지만, 그보다 전에 타 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OIA는 학생의 경제적 환경도 고려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외부 재단 장학금의 경우 준비할 게 조금 더 많지만 경제적인 것 외의 다른 것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외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다소 이르게 절차가 진행되므로 사전에 찾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등록금은 UCB에 직접 납부하는데, 이때 건강 보험의 경우 iso 등을 통해 waiver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등록금에 포함되어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가격이 높고 저희가 4개월간 실제로 사용할 확률이 매우 적은 부분까지 커버하는 보험인만큼 가성비도 떨어집니다. 이보다는 iso라는 다른 외부 보험을 사용해 건강 보험을 대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때, 미국 대부분의 기관은 일처리가 한국 대비 느리기 때문에 waiver를 신청하셨음에도 납부해야하는 금액에 건강보험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건강 보험을 중복 지불해 학기 시작 이후 이를 환불받아야 했습니다. (환불 절차 역시 매우 느리고, 직접 사무소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waiver를 신청하신 뒤 일주일 정도 뒤에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고지서에 보험 관련 내역으로 청구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유용한 정보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의 날씨가 좋은 편이기는 하나, 1학기(spring semester)에 가실 경우 한국보다 오히려 서늘합니다. 2023-1학기가 특히나 날씨가 안 좋은 학기였다고는 하나, 전반적으로 해안가인만큼 바람이 많이 불고 기온이 낮으니 캘리포니아의 여름 날씨를 상상하지는 마시고 얇은 외투와 긴팔 위주로 옷을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1학기 내내 긴팔과 긴바지를 입었고 (아주 가끔 반바지), 이마저도 밤에는 추워 얇은 가디건을 추가로 입었습니다. (2학기에는 날씨가 한국보다 더 따뜻하다고 합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우선 https://berkeleytime.com/landing에 들어가셔서 듣고 싶은 수업의 강의평을 보시고, phase 1이 시작하기 전 수강신청 플랜을 수립해두셔야 합니다. (phase 1,2로 나뉘어 있으나 교환학생은 대부분 phase 2로 넘어갈 것 없이 phase 1때 수강신청을 모두 해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교수에 대한 평가, 평균 점수, 강의 시간 및 현재 수강인원 현황을 제공합니다. 또 학과마다 학점인정을 해주는 교과목의 기준이 상이하므로 가능하다면 사전에 어떠한 과목을 듣는 것이 그나마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마저도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들어서 그냥 본인이 교환의 목적에 맞게 강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자리 숫자가 붙은 과목은 기본 교과목이고, 100이상으로 넘어가는 숫자가 과목명에 붙어있다면 3,4학년을 위한 심화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전공은 모르겠지만, 사회학 과목들의 경우 100 이상도 개인적으로는 서울대의 일반 강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난이도라고 느껴졌습니다.)

인기가 많은 과목일 경우, 본인 차례가 오기도 전에 수업이 마감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waitlist에 들어가 자리가 나기까지 순서대로 기다릴 것인지, 혹은 이를 버리고 다른 과목을 찾아볼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다른 강의를 알아보거나 플랜비로 뒀던 다른 과목을 넣어놓고, 학기 시작 이후까지 waitlist에 넣어두었던 강의를 청강하면서 자리가 나기를 노립니다. (학기 시작

이후에도 첫 주에는 출석을 체크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시간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강의 청강, 혹은 신청한 강의 무단 결석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과목을 waitlist에 넣어두고 들어갈 때까지 청강을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으로 여겨졌고, 무난하게 사회학 강의 중 수강인원이 넉넉한 강좌로 들었습니다.

(수강신청은 미국 현지 시간대 기준으로 이루어지기에 한국으로는 새벽 2-4시쯤 수강신청을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은 애초에 학생별로 수강신청 일자를 다르게 배정해서인지는 몰라도, 서버가 터지거나 순식간에 마감이 되어서 클릭 전쟁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듯했습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분류	과목	특징	강의평 (주관적)
전선	Economy and Society	-4 units -빠른 발화 속도의 교수님, 다소 반복적인 내용의 수업 (같은 내용을 반복하셔서 이해하기는 수월함) -경제 사회학의 기초로서, 시장 생성 이론에 대해 배울 수 있음 (내용적으로 얻어가는 것은 가장 많았던 강의)	- 추천도: 3.5/5 - 무난한 사회학 강의 찾는다면 추천
전선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4 units -최고의 강의력, 뚜렷한 교수님의 발음과 직관적인 수업 교안, 과제에 대한 세세한 피드백 -사회학 기초 수업으로 난이도는 낮으며, 새롭게 배워가는 것은 적었음	- 추천도: 4/5 - 적은 로드, 깔끔한 강의
교양	Berkeley Changemaker	-3 units -기대와 가장 멀었던 수업 -교양 팀플 수업이나, 수업은 비대면 zoom으로 이루어졌고, 그만큼 팀원과의 교류가 매우 적었음	- 추천도: 1/5 - 실망스러운 팀플 수업, 쉽게 해치울 수 있는 교양 원한다면 추천하나 얻어가는 것 적음
교양	Bioinspired Design	-4 units -breadth course로서, 모든 버클리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각 분야에 대한 기초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데, 이 강의는 그중 문과 학생들을 위한 이과 기초 교양 과목을 잘 알려져 있었음	- 추천도: 2.5/5 - 이과 교양 궁금한 문과에게 추천
교양	Winning Woman	-2 units -버클리에서 들은 수업 중 가장 만족했던 수업 -컨설턴트, VC, 각 기업의 임원들을 초청해 그들의 career journey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 추천도: 5/5 - 비즈니스 분야의 진로에 관심있다면 추천

		-연사에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음	

3. 학습 방법

로드가 빡센 수업이라고 현지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더라도, 체감상 서울대의 일반 전공 수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꼈고 특히 전공 수업의 경우 (제가 들은 것은 2개밖에 없지만) 서울대학교 수업보다 더 수월했습니다. 우선 조교님들이 discussion session을 열어 수업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들을 직접 물어보며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매주 수업을 복습하며 정말 말 그대로 떠먹여 주십니다. 심지어 기말고사 기간에는 dead week라고 하여, 수업이나 과제 없이 오로지 시험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 다소 공부가 밀려 있더라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기간도 주어집니다.

저는 1) 수업 시간 이전에 주어진 reading을 다 읽어가면 좋지만.. 다 읽지는 않고 목차/각 챕터의 처음과 끝만 훑어갔습니다. (수업 시작 30분 전에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2) 수업을 듣는 중에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속기는 아니더라도 다 받아적습니다. 3) 시험기간에는 ppt 교안과 필기본을 같이 읽으며 내용 숙지하고 필요하다면 정리해서 주요 부분 위주로 암기합니다. (수업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들은 수업들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암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큰 줄기에서의 내용만 이해하고 글로 쓸 수 있으면 되는 정도였습니다.)

4. 외국어 습득 요령

외국어는 수업으로 늘었던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최대한 많이 말을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4개월만으로 드라마틱하게 영어가 늘지는 않았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놀러다니는 것만으로도 영어로 말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현지 친구들도 문법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 교환학생이라고 하면 다들 어느 정도 서툶은 감안해주기 때문에 이상하게 말해도 뜻만 전달된다면 의사소통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욕심이 있으시다면, 교내에 language learning class도 있으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 친구와 언어교환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5. 기타 유용한 정보

학업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환학생은 적극성이 정말 많은 부분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1년 정도 미국에서 수학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중학생이고 매일 등교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다보니 영어가 빠르게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의 영어 향상 정도를 기대하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대학 생활은 (특히 몇백 명 단위의 수업이 기본인 해외 대학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는 강제성도 없고, 수업조차 본인이 빠지고 싶으면 언제든 빠질 수 있는 수업이 많습니다. 자유롭게 원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여행다니고 싶을 때 여행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영어는 comfort zone에서 벗어나 계속 소통을 시도하면서 늘기에 본인의 의지가 떨어진다면 그만큼 실력이 향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영어 향상이 목표 중 하나시라면 꼭! 이 목표를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수업 중 옆자리 친구에게도 말을 걸어보시고, 가능하다면 수업 이후 약속을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수업 중 교수님께 손을 들어 질문도 해보시고, 이게 어렵다면 메일로 질문을 드리거나 office hour 상담을 신청해 따로 진로나 수업 과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미국 학생들은 서로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정말 신경을 쓰지 않고, 수업 중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서툰 영어라도 천천히 질문하시면 대개 이에 맞춰서 교수님도 천천히 대답해주시고, 또 이를 보고 수업 이후에 다른 친구들이 말을 걸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교수님과의 coffee chat도 정말 추천드리는데, 특히 미국으로 대학원 진학 계획이 있으

시다면 꼭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lab 추천을 해주시거나 교환학생 신분에서 방문하면 좋을 기관 리스트를 뽑아주시기도 합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상술하였듯 긴팔 외투 잘 챙겨가시고, 그 외에는 따로 안 챙겨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walgreens나 target같은 생필품 구매 가능한 곳이 많고, 여차하면 amazon으로도 주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mazon의 경우, 학생할인으로 6개월동안 premium 버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덕분에 교환학기 4개월동안 빠른 배송으로 배송비 없이 저렴하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미국으로 갈 때 28인치 캐리어 2개를 가져가는 바람에 막상 비행기 여행을 다닐 때에는 캐리어를 활용할 수 없었는데, 이것도 사실 배낭 하나로 3박 4일 일정 정도는 잘 해결할 수 있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조금 비쌉니다. 외식은 기본으로 20,000~25,000원대이고, 그렇다고 음식의 질이 높은 것도 아니라서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친구들과 놀러다니려면 기본적으로 외식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재정 상태를 잘 관리하시면서 약속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약속이 잡힐 때에는 외식을 하고, 그 외에는 기숙사 식당에서 최대한 3끼를 모두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만일 기숙사가 아니라 off-campus에서 묵는 분이시라면 식재료 자체는 한국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을 보셔서 요리해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RADER JOE'S와 같은 마켓, 혹은 FOOD PANTRY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식재료를 누구나 공짜로 받아갈 수 있는 학교 복지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 타고 15분 정도 가시면 BERKELEY BOWL이라고 아시안 식자재를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1) 의료

Tang center라고, 진료를 봐주는 교내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용한 적이 없어 잘 모르지만, 의료 보험으로 기본적인 치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정신 관련 분야까지 꽤나 넓은 폭으로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듯하니, 아프시다면 tang center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은행

신한 change up 카드를 만들어 갔었는데, 하루에 30만원 밖에 외환계좌로 이체가 안 돼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가령 갑자기 1000불을 내야하는 일이 생겼다면, 사전에 그러한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알고 며칠 전부터 꼬박꼬박 30만원씩 이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이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휴일 및 주말 제외한 평일 한국 기준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매일 오후 5시 반만 되면 습관적으로 미리 30만원을 이체했었습니다.) 들어보니 동일한 카드를 이용하는 다른 교환학생들은 사전에 이미 외환계좌로 돈을 넣어놓고 왔어서 저처럼 매번 이체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니, 한국에서 최대한 많이 사전에 돈을 외환계좌로 넣어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했던 이유는, 카드사 간 송금을 할 때에는 수수료가 붙고, 액수가 클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기숙사비를 내야 할 때, 한국 카드에서 송금을 하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수수료만 십만 원대가 붙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wire transfer를 하는 것이 수수료 거의 없이 이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이를 위해서는 chase나 신한 change up 같은 외환계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놀 때에는 대부분 한 명이 돈을 내고, 나머지가 돈을 n분의 1로 송금하는 것이 흔한데, 이것도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현지 친구들이 애용하는 앱이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zelle 등을 통해서 송금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chase와 같은 현지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계좌를 만들어도 카드가 발급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미국에 도착하시면 가급적 빨리 은행 방문 신청을 하셔서(온라인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chase나 boa 계좌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통신

Mint mobile 사용했습니다. 학생 할인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도 했고, 별도의 통신사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한국에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멕시코와 같이 해외로 나가실 때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때는 개별적으로 데이터 구매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외로 출국 시, 미국에서 이용하던 통신사를 별도의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mint만 그런 게 아니라, at&t 등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4) 교통

버클리,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일대가 모두 대중교통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기에는 수월하나, 공지 없이 버스 경로나 버스 정류장 위치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다소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역 전체의 특징인데, 대중교통이든 일반 거리이든 해가 지고 난 이후에는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9-10시가 지나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10시가 지나면 대중교통보다는 uber나 lyft를 사용했습니다. 다소 가격대가 있더라도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함께 이용해서 n분의 1하고 나면, 생각보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인당 2-5달러 정도 했던 것 같네요.) 약속 나갈 때나, 가까운 마트에 갈 때에는 학교 측에서 AT transit pass와 같은 버스 무료 이용권을 줘서, 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저는 버클리의 경영 분야에도 관심이 생겨서 MCCB라는 한인 컨설팅 동아리에 참여했습니다. 한인 동아리 특성상 외국어가 늘지는 않지만, 한인 네트워크 동아리 특성상 같이 놀러다니는 활동이 많아서 보다 풍부한 교환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땅이 넓어 대부분의 여행에 자동차가 꼭 필요하고, 국제 운전 자격증이 없는 경우 자격증이 있는 친구와 함께 팟을 꾸려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친밀한 관계 형성이 가능한 집단이 있다는 것은 큰 메리트인 것 같았습니다. MCCB가 아니더라도 자연과학 관련 동아리나 봉사 동아리 등이 있으니, 학기 초에 열리는 KCO (Korean Club Orientation)에 참여하셔서, 한인 동아리 하나쯤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인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학기 초에 동소제와 같은 축제를 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Sather gate 쪽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학기 초에 사람들을 여럿 모아 pepper spray를 공구했습니다. 버클리는 치안이 좋지 않아, 평소 외출할 때 호신용 스프레이를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니, 하나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늦은 밤에 학교 주변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버클리 앱을 통해 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같이 귀가를 해주는 도우미 분이 배치된다고 하니, 주

저하지 마시고 9시 이후에는 꼭 일행과 함께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Ⅵ.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길 줄 알았던 1학기의 교환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출국 전에는 1쿼터만 신청할 걸 그랬나 고민했는데, 막상 도착해서 생활해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4달이 끝나버렸습니다. 1학기의 교환학기 동안 얻고자 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확실히 4달의 해외 경험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시야, 남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남들보다 빠르게 무엇인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삶을 추구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겨를 없이 학점, 동아리, 학회 등 쉴새 없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찾아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달간 저와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는 분들께도 교환학생이 하나의 전환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